東亞日報

編輯人 郭[illegible]植
發行人 金勝文
印刷人 李彥鎭

發行所 京城市太平通 (京日社屋內) 東亞日報社 電話本局②一一八一番

月定購讀料金二十五圓

社說

謀利輩跳梁을 嚴重團束

一

戰後朝鮮의 經濟混亂은 統制經濟體制에서 갑작히 自由經濟體制로 無計劃하게 移行하려는 데에 그 原因이 있는 줄 안다. 物資生產은 極度로 制壓되어 있는 데도 不拘하고 消費生活은 自由放任하고 있는 까닭에 商品의 買占, 賣惜의 弊害가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解放後 一般物價는 日益天井不知로 騰貴의 一路를 밟고 있는 바 生產不振, 通貨膨脹 等의 問題는 勿論外로 하드래도 우선 當面한 緊急措置로 住宅, 生活必需品缺乏을 奇貨로 跳梁하는 謀利輩들의 徹底團束이 要望된다. 日人所有農地, 住宅 等을 朝鮮人에게 放賣한다는 趣旨도 自作農을 增加시키려는 것이요 집없는 사람에게 住宅을 提供한다는 것이어늘 巷間에 傳하는 바에 依하면 日人家屋을 한사람이 一棟以上은 勿論이요 十餘棟을 占有하야 집없는 사람 特히 罹災民等의 窮境을 노려가면서 所謂 高價의 權利金을 要求하는 惡德謀利輩가 만타고 한다.

二

住宅뿐만 아니라 食糧其他生活必需品等에 있어서도 謀利輩의 蠢動으로 말미아마 益々物價高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卽彼等은 自己의 私利私慾을 滿足시키기 爲하여서는 道德도 없고 民族도 없는 一種利慾에 隸屬된 奴隸群에 不過하다. 日軍退却時에 無制限濫發한 朝鮮銀行券은 朝鮮經濟의 破壞를 意圖한 經濟攪亂策으로 볼수 있는바 이에 加勢하고 協力하는 것이 此種謀利輩들의 活動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軍政當局의 好意的施策에 相符토록 『土地는 耕農에게 住宅은 집없는 사람에게』의 成果를 엇도록 하는 手段은 謀利輩들의 徹底肅淸이 없이는 不可能할 줄 안다.

三

通貨濫發, 三八障壁에 依한 物資停滯도 우리 生活에 一大支障이어든 物資缺乏, 停滯等을 好機로 一攫千金을 꿈꾸는 謀利輩들의 弄絡으로 國民의 經濟生活은 一大危機에 逢着해 있는 것이 最近의 現狀이니 監督當局은 모처럼 조흔 意圖와 聰明에 有終의 美가 있도록 實際의 具體方法에 있어서 逸脫이 없도록 明日의 民族幸福을 爲해서 不正謀利輩에게는 嚴刑의 斷으로 臨하기를 要望하는 바이다. 이의 實을 擧하기 爲하야는 全國民協力으로서 痲痹의 快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强調하는 바이다.

新韓公司의 性格檢討

再開할 國民會議準備도 協議

政務委員緊急會議

非常國民會議에서는 連日 分科委員會를 열고 各共擔當한 部門에 ... 에는 選擧法修正委員會 下午一時에는 常任委員會가 있었는데 常任委員會에서는 不日間再開할 非常國民會議에 對한 準備的協議를 하기로 되었다.

關하야 眞務한 討議를 하여 오든바 日前에 發表된 新韓公司의 軍政廳法令五十二號에 對하야 三月十日午前十時에 韓美호텔에서 政務委員會를 緊急召集하고 그 法令에 依하야 創立된 新韓公司의 政治的性格을 檢討한 後 民族的總意로써 此에 對處할 것을 決定하고 同事務局을 通하야 如左한 發表를 하였다. 그리고 同十時

【非常國民會議 事務局發表】三月十日午前十時 진고개 韓美호텔內 非常國民會議 議政室에서 非常國民會議 政務委員會를 열고 同政務委員會豫算案其他를 討議한 後 左記決定이 있었다.

一, 東洋拓殖會社의 後身인 新韓公司의 政治的性格에 關하야는 愼重檢討한 後 關係當局의 眞意를 어더 必要에 따라서는 全民族總意로써 이에 對處할 것

一, 大韓獨立促成國民大會는 政黨의 形態를 떠나 純粹한 國民運動의 性格을 固守함이 妥當하다고 規定함

飜譯에 誤譯잇다

輿論의 反對條項은 芟除

【軍政廳公報局特別發表】一九四六年三月十日 今日 軍政長官 아―처 러―취 少將은 新韓公司創立에 關한 朝鮮文法令 第五十二號 第一條에 誤譯이 있었음을 指摘하였다. 當初에 新聞과 라디오를 通하야 發表된 同法令의 譯文은 新韓公司가 軍政廳으로부터 『獨立된』 機關으로 創立된 것 같이 一般이 解釋하게 된 點이 있으나 그것은 事實이 아니다. 同公司는 軍政廳의 全的管理下에서 한 法人으로써 運營될 것이다. 러―취 長官은 이 法令에 依하야 執行된 모든 行爲는 반드시 軍政長官의 許可를 받어야 되는 것이오 또 朝鮮人의 福利에 背馳되는 行爲라면 決코 許可하지 않을 方針이라는 것을 言明하였다. 特히 러―취 長官은 美國官吏가 가진 關心은 오직 朝鮮이 要求하는 利益에만 있을뿐더러 自己의 意圖는 新韓公司가 朝鮮人의 福利를 增進시키는 目的을 完遂하면 其時에는 淸算시킬 것이라는 點을 强調하였다. 訂正된 朝鮮文法令第五十二號는 數日內로 發表될 것이어니와 그것은 英語原文과 꼭같을 것이며 同時에 正確하게 輿論에 依하야 指摘反對된 諸條項을 芟除明示할 것이다.

民主議院 金俊淵氏放送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 金俊淵氏는 지난六日밤 中央放送局을 通하야 다음과 같은 要點의 放送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에서는 聲明書를 發表하였습니다. 그中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點을 말하였지만은 特別히 들어서 말할 것은 우리는 自主獨立만을 願한다는 것을 明白히 한 것입니다. 三千萬同胞의 總意를 代表한 우리 國民代表民主議院에서는 過渡政權樹立에 있어서 關係友邦과 合作하되 絶對自主獨立의 精神으로써 하겠다는 것을 明白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야 모스크바三相會議에서 問題되었다는 信託統治問題에 關하여서는 그것이 우리의 自主獨立에 損傷됨으로 始終一貫하야 이를 斷然拒否함이 가장 正確한 民族總意인 것을 또다시 聲明하였읍니다. 이 託治問題에 對해서는 去十二月廿八日에 그 消息이 우리에게 傳하여 오자 우리 三千萬同胞는 全國的으로 그에 對하야 反對의 意思表示를 行하였읍니다. 그리고 지난 二月十四日에 우리 民主議院 發會式때에도 議長李承晩博士께서 또 그 點을 明白히 하였읍니다.

自主獨立에 努力하자

모든 問題는 그 다음에 解決

하―지將軍以下 우리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全美國將兵은 모다 韓國信託統治에 反對한다는 것을 明白히 하였고 그後에 民主議院會合에서도 美國國務省에서 公式發表한 것을 보면 韓國의 過渡政府가 適合하게 樹立되면 信託統治를 하지 아니할수도 있겟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때에 더욱 擧國一致하야 우리의 態度를 明白히 하여야 하겟읍니다. 지금 京城에 美蘇共同委員會가 모이게 되었읍니다. 또 去番會合은 單純히 經濟問題, 南北道路問題, 枝葉問題等에 對한 會合에 끄첫것이지마는 今番에는 正式으로 政權樹立問題에 들어가서 討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重大한 時期에 到達하였읍니다. 全國三千萬同胞가 男女老少할것없이 다가치 우리獨立을 爲하야 부르지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自主獨立만이 必要하다는 것을 明白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點에 있어서는 우리民族의 總意는 明白히 되어 있읍니다. 지금 己未年運動에 있어서 우리가 倭敵의 絶對抑壓下에 있으면서도 敢然히 일어나 赤手空拳으로 獨立을 부르지젓다는 것은 일의 世界에 우리의 態度를 發表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一日의 京城市中의 光景을 보면 더욱 明白히 되였읍니다. 우리 民主議院에서 主催하였든 鍾路鐘閣앞 뫼慶祝式典이며 서울運動場에서 擧行한 己未獨立宣言紀念全國大會의 光景이 얼마나 盛大하였으며 얼마나 宏壯하였읍니까? 그날은 조흔 날세도 되기때문에 京城市住民의 動員된 數는 참으로 前無한 光景이었읍니다. 집에 남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만치 되였읍니다. 京城運動場에 集合한 群衆만하여도 十萬이나 된다고 하였으며 그 行列이 지나가는 途中에 集合한 群衆까지 合計하면 無慮百萬이라고 하였읍니다. 이와같이 서울全市民은 獨立祝賀에 熱中하였읍니다. 우리韓國民族의 獨立自主에 對한 要求渴望이 이러케 熾烈한데 一部極少分子가 託治를 支持하느니 蘇聯加入을 希望하느니 하는 것은 참으로 韓國의 歷史와 韓國의 民族心理를 모르는 可笑로운 行動이라고 하지 아니할수 업습니다. 우리는 獨逸을 打倒하고 日本을 擊碎하는데 對하야 莫大한 貢獻을 한 蘇聯에 對하야 感謝하야 마지아니하며 따라서 今番에 美蘇共同委員會에 出席한 蘇聯代表에 對하야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러하지만은 우리 韓國民族이 絶對自主獨立을 願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充分히 認識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一部極少分子들의 虛無孟浪한 말에 귀를 기울리지 안키를 바라는 바입니다. 韓國은 世界最古의 歷史國의 하나로서 言語文字, 風俗習慣等, 完全히 統一된 高等文化民族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입니다. 나는 美國代表나 蘇聯代表가 韓國民族全體의 意思를 把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야 全民族의 總意에 合한 解決을 지어주어야 韓國民族이 永久히 感謝할 것이라는 것을 理解하여 줄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國際平和라는 것은 民族間의 感謝하는 생각우에다가 基礎를 두어야 그것이 堅固할 것입니다. 이 重大한 時期를 當하야 우리 韓國三千萬同胞民衆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自主獨立만을 爲하야 努力합시다. 모―든 問題는 그다음에 解決하기로 하여야 하겟습니다. (寫眞은 金俊淵氏)

美蘇會談과 우리의 態度 (上)

枝葉보다 根本問題

自主獨立의 原則으로부터 出發

本社主幹 薛義植

重大問題가 뒤를이어 派生續出한다. 紙面은 없고 붓은 분주하야 무엇부터를 始作할지가 問題다. 國內問題로, 國際問題로 風雨를 包藏한 低氣壓은 그 勢力이 漸々擴大되고 잇다. 中心은 어디에 잇고 方向은 어드멘가? 美國評論家 『아―놀스피스』氏의 指摘을 기다릴것 없이 그 核心은 美蘇에 잇다. 三八線問題를 싸고도는 朝鮮의 美蘇關係는 모든 懸案을 풀어보는 好個의 前提다. 더구나 이것은 우리의 總意와 總血로써 戰取하고 遂行하려는 完全한 自主獨立과는 距離가 떨어진 問題인만큼 一時라도 看過할수가 없는 바이다. 그리하야 筆者는 于先 이 問題를 들어 우리의 態度를 鮮明히 할 必要를 느낀다.

◇

第二次美蘇會談의 開催를 앞두고 第一次會談의 顚末이 軍政廳으로부터 發表되엿다. 空虛한 「코뮤니케」의 發表만으로 곳을 맛첸 第一次會談이 아무成果없엇든 것은 이미 짐작한 바이엇으나 當時에 詳細한 公報가 없엇음으로 그 不成果의 責任이 어디에 잇엇으며 그 經緯의 曲節이 어떠케 되엿든지는 明白키 어려웟섯다. 設或 推斷할 수 잇엇다 하더라도 正式發表가 없는 以上, 正面으로 이를 批判할 名分이 없엇다. 그리하야 本報는 지난번 三八線撤廢要求國民大會의 開催를 機會삼아, 社說로써 우리의 主張을 다시금 高調하는 同時에 그 責任所在에 對하야 美蘇當局의 明答을 求하엿든 것이다. 旣報한 軍政當局의 發表는 이 明答의 一部로 解釋하야 無妨하리라. 그러므로 筆者는 이 發表를 根據로 하야 우리의 判斷과 우리의 態度를 端的으로 表明하려고 한다.

◇

發表된 全文은 浩繁할지라 그 抄錄만도 紙面이 없다. 그 事務的折衝이 如何튼가 各種各個의 案件如何같은 것은 原來 爭論할 必要도 없고 또 大端한 關心도 아니다. 問題의 中心과 基本은 첫재, 當初 單純한 軍事的必要에 依하야 暫定的으로 設定된 이 假首線의 無用을 是認하는 與否. 둘재, 朝鮮의 完全한 自主獨立과 이 兩斷線의 存續이 勢不兩立되는 根本理念에 同意하는 與否. 셋재, 國際公約과 朝鮮獨立援助라는 名分을 爲하야 이 三八線의 全面的撤廢를 決定하는 與否. 넷재, 撤廢를 前提로 할진대 그 精神과 意圖와 準備工作을 行動으로써 實證하는 與否. 다섯재, 時期의 明示와 方法의 原則을 確定하야 迅速한 解決을 遂行하는 勇斷을 보혀주는 與否. 等이다. 그리하야 弱者인 朝鮮三千萬民衆으로 하여금 聯合國의 勝利와 恩功을 길이 祝福케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强者인 美蘇兩國이 人類的理念과 國際的正義의 代行者로서의 威嚴과 榮譽를 享有하는 正常한 길이다. 그런데 第一次會談은 무엇을 結果하엿는가? 第二次會談은 무엇이 期待될 것인가? (계속)

蘇聯軍의 機械搬出

滿洲各地에서 被害多大

【長春十日發AP合同】一部情報에 依하면 蘇聯이 滿洲로부터 搬出한 工業施設은 다음과 같다.

奉天 工作機械, 鐵道施設, 自動車, 精密機械, 電話, 보이라, 光學機械, 電信器具, 알루미늄其他化學製造品, 精製器具, 모―타―類, 其他重工業機械設備大部分

長春 工作機械, 精密機械, 松花江水電發電機

吉林 카바이트製造用一萬五千키로왓트의 電氣爐

鞍山 製鐵所施設全部

大連 化學工場內의 瓦斯發生機四台, 船舶修繕設備全部, 『암모니아』工場施設의 五分之三

【重慶十日發AP合同】蘇聯軍의 日本人施設重工業機械搬出에 對한 重慶各新聞의 論評은 다음과 같다.

▲衆報 蘇聯軍이 滿洲工場施設을 搬出한 것은 滿洲工業土台의 回復치 못할 破滅을 齎來한 것이다. 우리는 現在蘇聯이 要求하고 있는 經濟的協力이라는 意味를 理解치 못하는 바이다. 蘇聯은 中蘇協定에 依하야 利權을 이미 獲得치 않엇는가.

▲世界報 우리는 蘇聯撤退보담도 오히려 그 無制限한 經濟的要求에 關心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現在 蘇聯軍은 鞍山施設을 分解搬出한 後에 共同管理를 要求하였음으로 이는 結局 共同管理가 아니고 事實上 蘇聯의 獨占管理가 되는 것이다. 蘇聯은 滿洲工業施設을 戰利品이라는 名目으로 搬出하고 있는데 滿洲自體를 戰利品이라고 認定치 않는다는 것은 누가 保證할 수 있을 것인가.

南京還都令을 發布

來三月廿五日頃에

【重慶十日UP發朝聯】카로리系厚生日報의 報道에 依하면 南京還都令이 正式으로 發布되는 것은 三月廿五日이 되리라고 한다. 이미 政府에서는 輸送用으로 多數의 飛行機를 豫約하였다.

事態는 依然混沌

蘇軍奉天에서 長春에 撤退

【重慶十日發AP合同】中央通訊報道에 依하면 蘇聯軍은 全面的으로 奉天에서 撤退中이나 現在狀態는 中共軍의 存在로 말미아마 險惡化하고 있다. 中共軍의 奉天郊外에 있어서의 行動은 妥當할 바이며 奉天全市를 略取할는지도 모르는 狀態이다. 日下奉天은 原因不明의 火災가 發生하야 火焰이 冲天하고 있다. 蘇聯軍은 撤退前에 正式으로 奉天守備의 任務를 中國人에게 讓渡하고 大部分은 北行하고 少部分은 南行하야 旅順으로 向하였다. 北行한 蘇聯軍은 長春에 到着하였는데 이것은 長春을 通過하는 路上인지 또는 永久駐屯인지 判明키 어렵다 한다. 그런데 中國政府側近者의 言明에 依하면 中國政府는 正式으로 蘇軍奉天撤退에 關한 通牒은 接受치 못하였다 한다. 그러고 一方上海情報에 依하면 中央滿洲行政機關을 接收할 中央政府官吏五百六十名은 十一日까지 待機하라는 命令을 밧엇다고 傳한다. 現在奉天에는 四千名의 中央軍이 駐屯中이나 中央軍의 行動은 市의 一部分에 制限되고 있는 狀態이라 한다. 中國駐屯美軍司令官 『웨드마이야』 中將은 記者團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滿洲는 中國管轄下에 一部에 屬하였든 것이라고 또 滿洲의 日本人送還問題를 常생각하고 있었다. 또 蘇聯側이 美國側과 同一하게 생각지 않는다 하드래도 日本人을 歸還식혀야 할 것은 當然한 일이다』

『처칠』氏演說에 對하야 美國務長官釋明

【華盛頓十日發AP合同】美國務長官 『번즈』氏는 記者團에게 『自己는 『처칠』氏演說에 對하야 事前에 아무런 豫備知識도 없었고 또 美政府는 『처칠』氏演說과 아무런 連絡도 없었든 것이다』고 말하였다.

맥아더元帥를 번즈長官稱讚

【華府九日發共立】國務長官 번즈氏는 同氏가 지난 三月七日附로 맥아―더元帥에게 보낸 書面의 內容을 公開하였다. 번즈氏는 同書面에서 맥아―더元帥가 日本進駐以來의 輝々한 功勳을 稱讚하고 그 一節에는 『貴下는 戰場에서 名將으로서의 功을 세우고 光輝있는 勳章을 세웠다. 그러나 昨年八月 日本의 降伏以來 貴下는 武人인 同時에 政治家임을 立證하고 있다. 나는 戰時와 平和時에 거두어 貴下의 成功을 光榮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人事往來

▲崔海鍾氏(本報大邱支局長) 令胤俊植君京城鐵道病院에入院加療中三月十日死去

횡설수설

▼뛴다. 勇見가 뛴다. 靑年이 뛴다. 學生이 뛴다. 잠옷을 입기에는 봄바람이 아직도 찬데 輕快한 運動服에 運動靴를 신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매친채, ▼뒤숭숭한 서울의 거리를 뛰어가고 뛰여오는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뛰는 것을 아는 朝鮮의 아들이고나! ▼世界의 마라손王을 朝鮮에서 내지않았든가? 그이의 가슴팍이에 日章旗를 지운것이 弊哉라 해서 兩大新聞이 廢刊까지 當하지 않았든가? ▼그러나 그대들이 世界와 大會場에 나섯을 때에는 뚜렷한 太極旗가 그대들의 가슴에 빛날것이 아닌가? 뛰는 者여! 힘껏 뛰라! 점잖을 뛰어드려서 뛰고 뛰라! ▼그대들이 크게 뛰면 朝鮮도 크게 뛴다. 마라손朝鮮을 그대들이 마트라, 뛰어난 先驅의 偉名을 繼承하라. ▼처벅처벅처벅― 勝利의 다리와 다리가 大地를 밟는 소래― 잡은 ... 도 따라서 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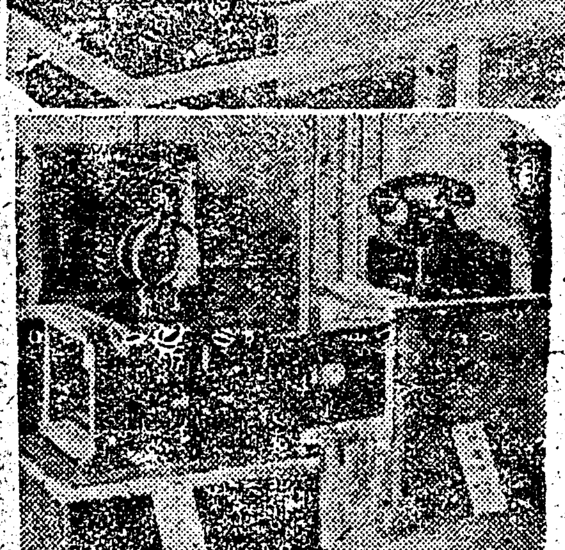
新生祖國의電波化

무선통신은 조국재건에 문화의동맥 [illegible]한것으로 체신국에서는 전국내의 통신설비에 착수하엿다

五十餘의各局과無電으로通信
서울에는中央無電局設置 四月부터

과거 수년동안 전쟁중에 각지방의 전화 전신선은 대부분고장이되어 통신이 잘되지안는 상태에 빠저 잇엇고 일업는자재를구하야 수선을해왓스나 여러가지사정으로 통신이잘되지못하여왓다 그런데이번 체신국에서는 새로히 무선전화 전신을남조선각지방 주요도시五十여처 우편국의설치하기로하고 방금준비중인데 느저도四월초순까지는전부 설비를완료하게되리라한다 이게 실현되는날에는 시내광화문중앙전신국내에 중앙국(中央局)을두고 무전기가배치된 남조선각지 지방우편국과에 통신을개서할것으로 서울、부산간을 위시하여 주요도시사이에는 시내통화보다도 빨리통화될것이므로 일반은 큰 기대를가지고 잇다 이에사용할무전기는 전에 일본군인이 사용하든 것이다 무전기를배치할 남조선각우편국은 다음과 갓다 【사진은(上)각우편국에 배치할 무전기와(下)는 본국에배치할무전기】

▲中央電信局▲仁川▲開城▲水原▲江華▲公州▲大田▲天安▲裡里▲光州▲木浦▲順天▲濟州島▲晋州▲密陽▲尉山▲全州▲群山▲大邱▲金泉▲安東▲浦項▲慶州▲釜山▲馬山▲春川▲原州▲江陵▲淸州▲忠州(以下略)



말없는邂逅
金九總理島山墓에

도산 안창호(安昌浩)선생의 八주기인十일 김구(金九)총리는 엄항섭(嚴恒燮)씨와 동반하야상오 九시 고선생의망우리묘지를차저 동지의명복을빌며 독립국가완성을 굿게맹서하고 도라왓다 고도산안선생은 왜적의탄압아래에 꾸준히광복을위하야일생을 바처오다가 一九三八년三월十일에 이세상을떠낫다 【사진一고 도산선생】

全朝鮮文筆家大會
13日午后一時鍾路基督敎靑年會館서
民主文化의再建에邁進
推薦會員・四百四十名을招請

정인보(鄭寅普) 이선근(李瑄根) 이관구(李寬求) 설의식(薛義植) 손진태(孫晋泰) 안호상(安浩相) 제씨의발기로 학자 평론가 소설가 시인 신문잡지 통신등에종사하는 저날리스트를총망라한 전조선문필가협회(全朝鮮文筆家協會)결성대회는 조국광복에 협력하려는구든 결의을한데모아 十三일오후一시 종로YMCA에서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추천회원은실로四백四十명에달하며 명부에빠진 미추천자도 당일결성식에 참가하기바란다고한다 그런데 동대회의강령과 추천회원은다음과갓다

◇綱領 △眞正한民主主義國家建設에貢獻하자△民族自決과國際公約에準據하야 卽時完全自主獨立을促成하자△世界文化와人類平和의理念을究明하야 이의一環으로 朝鮮文化를發展시키자△人類의福祉와國際平和를爲하야世界利潤을꾀하는非人道的傾向을排擊하자

◇推薦會員氏名 無順

崔寅奎、李圭煥、朴勝喜、朴勝進、李相南、李炳逸、金正革、鄭自山、李寬求、李貞淳、南廷駿、朴明煥、錢鎭漢、薛義植、高在旭、白南敎、玄회運、金永羲、柳雲甚、黃信德、成仁基、李晶燮、申敬淳、金炯元、文東彪、韓普容、文章郁、卞東昱、吳基永、洪鍾仁、成百선、朴克采、金良瑕、崔允植、安東赫、李府求、李聖鳳、李先根、李甲珠、崔奎南、金思卿、金鳳集、金允基、文원柱、崔奎東、趙東植、李炳奎、金法麟、孫貞圭、方信榮、金活蘭、朴仁德、丁奎泂、朴術音、朴鍾鴻、金鳴善、黃錫禹、桂貞植、蔡東鮮、李升學、全[illegible]基、金元福、洪鳳珍、田榮澤、吳天錫、朴露兒、申鼎實、尹白南、韓雪野、李丙燾、張厚永、李鴻植、李健赫、張道斌、郭福山、盧[illegible]煥、兪鎭午、朴順天、朴承浩、任鳳淳、金俊淵、陳承錄、李仁、張東明、高永煥、李勳求、尹行重、金翰容、安貞山、沈李顯、金昱鎭、白麟濟、尹日善、柳漢相、金相悅、金온、李泰圭、李升基、金斗憲、崔凡述、金東華、蔡官錫、趙炳熙、李浩盛、朴在敏、金晋燮、康承翰、金鎭壽、盧天命、尹永春、金達鎭、李時雨、李熙昇、趙容萬、趙憲林、鄭飛石、趙潤濟、鄭烈模、咸璟、皮千得、張鳳鳳、李治、尹崑崗、張起悌、金武吉、吳時泳、咸世德、金鍾近、蔡廷根、張道煥、金河融、申辰淳、金甲順、高在燃、金廷漢、金北原、李秉哲、任西河、朴晉春、文世榮、方仁熙、崔根培、都相鳳、李馬銅、李順石、趙敬姬、朴泰遠、徐廷柱、金光均、朴鍾和、鄭芝溶、申南澈、桂鎔默、郭夏信、金起林、金東鳴、金永錫、金鐘漢、宋南憲、林炳哲、安懷南、蔡萬植、楊美林、吳相淳、尹泰榮、許俊、尹圭涉、尹泰雄、李앙河、洪曉民、張德祚、梁柱東、李庸岳、嚴興燮、柳致環、李秉岐、李善熙、金末峰、白鐵萬、洪一吾、金沼葉、尹石重、張萬榮、趙南嶺、金東琳、卞榮晚、許永鎬、吳宗植、朱錫東、崔鉉培、張志暎、黃義敦、權悳奎、呂尙鉉、李孝雨、金東仁、方仁根、黃順元、趙靈出、咸亨洙、李海文、崔義順、朱耀元、金午男、朴花城、李圭熹、李大容、李在郁、李揆元、兪恒林、崔仁化、兪丁濬、宋敦植、申龜鉉、裵想涉、朴八陽、張貞心、鄭弘巨、鄭玄雄、尹寄淳、吉鎭燮、盧壽鉉、高羲東、張勃、崔戴德、李景錫、李仝宰、李文熙、李一、金戰駒、金世炯、李憲求、朴榮根、李永世、玄濟明、金永謨、李相濂、金泰午、毛允淑、朴啓周、盧良根、閔泳珏、朴魯甲、朴泳鍾、薛貞植、辛石汀、金永雲、金永壽、諸永秀、林學洙、鄭芝溶、趙豐衍、吉亮宇、洪命熹、許保、池奉文、崔明翊、崔貞熙、趙芝薰、崔秉和、玄德、玄東炎、林春吉、金東錫、李鳳九、李雲谷、崔鳳則、金永鎭、徐恒錫、咸大勳、金桂淑、安浩相、李崇寧、李曙鄕、鄭寅承、李克魯、金炫考、成乘業、徐斗銖、尹福鏞、崔禮順、崔以權、金朝奎、金海剛、金滋惠、石仁海、金大均、金史良、朴魯洪、黃澳、李昇圭、申石草、韓黑鷗、金亨澤、具本雄、李象範、李承萬、李周奎、金基昶、金相弼、朴容九、咸和鎭、任東赫、安炳玹、安基澔、朴泰俊、安夕影、安鍾和、全昌根、朴基采、洪露雀、南宮薰、李甲燮、鄭鎭石、李相昊、閔成甫、李時穆、金成今、金正實、金武森、韓稚振、閔泰瑗、吳儁、梁在厦、姜旭中、金鼎卨、呂世基、李鍾模、禹昇圭、鄭寅翼、沈鶴鏞、都逢涉、姜정澤、鄭權陽、文仁柱、金錫煥、鄭文基、金容瓘、趙憲泳、明柱完、玄相允、白南薰、高鳳京、高鳳京、金起田、愼鏞頊、安鍾三、李貞基、朴慶浩、金聖泰、金容俊、李慶熙、李東珪、柳致眞、金炳奐、金承久、柳子厚、金容采、河敬德、李吉用、潘明秀、洪陽明、李선根、孫鳳祚、金炳魯、金光根、張鉉七、車相瓚、李昌洙、梁檟煥、金河楨、李容卨、崔三悅、李柏圭、崔瓊영、李正馥、趙錫鳳、卞榮泰、李熙絅、金允經、金東吉、金三重、金尙鎔、金珖燮、金東里、金允植、白石、金來成、金光洲、崔暎海、廉根守、李根榮、李鍾洙、李漢稷、吳河潤、李軒求、張瑞彦、申百秀、李弘鍾、任元鎬、梁雨村、朴榮濬、呂寅淳、張永淑、丁來東、金炳濟、黃文哲、孫晋泰、李元壽、趙碧岩、梁在應、柳春燮、朱耀燮、徐元出、金容甚、李丙熹、洪起文、李無影、朴晋屋、韓晶東、林玉仁、郭行瑞、田淑禧、李性杓、方鍾鉉、白鐵、崔仁俊、金廷漢、全洪俊、趙寅鉉、崔泰應、孫宇聲、李應洙、李秉祥、金璋俊、李鍾禹、金璉基、林學壽、洪得順、李快大

京城師範大學
九月부터"새"出發

일본노예교육에서 굴레를 벗고 새조선교육에로 혁혁한 새출발하는 경성사범학교(京城師範學校)는 오는九월부터 사범대학으로 출발하게되엿다 동사범대학은 본과(本科)에교육、국문、력사、영문과등으로 나누어잇고 예과(豫科)는부속중학교로 개편하는대 다음가치 보결생을모집하고잇다 (一)리과(理科)一년(명년구월에사범대학、수학、물리화학、생물과등에진학할예정)약八十명(二)문과(文科)二년(래九월에 동대학에 입학)약간명(三)사범대학一년해당학년 래九월에동대학一학년으로편입 교육、국문、력사、영문과등각약간명(四)예과(부속중학)一、二、三、四학년각약간명 시험기일은三월十四일부터三일간、출원기일二월二十[illegible]일부터三월十일까지이다

京城保育再建

시내청진정의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는 소위전시교육비상조치라는명목에걸려 정지되엇섯는데 이번동교졸업생유지로된재건축성회의알선으로 근근다시개교하기로되어준비중이다

人民委員會員檢擧
하야多數武器押收

【浦項支局特電】포항경찰서에서는 포항시인민위원회를 습격하고 장총、권총、수류탄등 다수무기를압수하엿는데、취조에따라 더욱 확대될듯 하다한다

糧穀의消費規定强化를
市顧問會에서道에建議

식량부족의원인이 량곡의과대소비에잇다하야 서울시고문회에서는 다음과갓은 량곡소비규정(糧穀消費規定)의강화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엿다 ◇建議(가)釀造業者를整備强化하고 密酒를嚴禁할것(나)製餠製飴을許可制로하야 그製造販賣를制限할것(다)飮食店의飮食時間을 午後六時부터九時까지制限할것

糧穀配給 군정청발표에의하면 전일남선각지로부터 약二만三천가마니의쌀이 서울에반입되여 방금 재고량은 약六만가마니라고하는데 이번배급도 긴급한 시민에게만 또배급하리라고한다 이번에는 배급바들가정은 정종대가인정한 三만五千세대 五일분을 배급하리라한다

還故鄕하는忠武公大捷碑
海南의復舊期成會서建立에奔忙

【海南支局特電】왜적의손에 자리를 쫏겨낫든 리순신(李舜臣)장군의대첩비(大捷碑)를다시 제자리에 복귀건립하자— 우리향토의영예이고 三백五十년전 임진(壬辰)왜난때 충무공 리장군은 여수(麗水)를좌수영(左水營)으로 해남을 우수영으로하야 왜병을여지없이 처부서 그용명을 천하에 드나리엇섯다 그뒤 충무공의 위업을 숭배하는 후생들은 우수영이잇든 이곳문내면(門內面) 울돌벙에다 통제사충무리공명냥대첩비(統制使忠武李公鳴梁大捷碑)를세워 전적을 기록해 내려왓섯다 그런데 一九四一년 태평양전쟁이 이러난뒤 더욱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증명하기 하야 심지어정당한사실(史實)까지 목살하려든론문화의강도일본은 마참내 이곳대청비마지 어데로인지자취조차감초아 버렷든것이다 비석의 자최조차 모른지어언 五년 해방이되자 군내유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향토의 최대유산인 이 비를 찻고저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엿다 이리하야 서울 국립박물관(博物館)인 근정전(勤政殿)북도에 갓다둔것을 인군내유지들은 곳 충무공 전첩비복구기성회(忠武公大捷碑復舊期成會)를 조직하야 당국과 복귀에대한 절충을 한결과 군정당국의 호의로 반이하는것이 허가되엇다 그러나 반이하려면 아무대도 수송과 경비가 문제이라 동기성회에서는 一향토를 중심한 호남일대는 물론전국적으로 이전첩비복구에 기금응분의협조를 바라고 잇는터이다(사진은 이충무공의영정과 박물관안에 잇는대첩비)

貨物運賃引上
小口扱은十倍程度 十五日서부터實施

운수국에서는 十五일부터 화물운임을 종전의약 十배가량올린다 그런데 운임산출방법은 소구급(小口扱)는종전의 약 十배 정도를올리는데 소구금(小口扱)의최저운임은 최저 十원이고、차금(車扱)은 협궤(狹軌)최저백원 광궤(廣軌)최저二백원이다

訂正 本紙八日附本面表題中警務局長은學務局長의誤植이고 同九日附記事中發電量개云々은全部키로의誤

時計材料都賣 서울市鍾路二丁目六 天寶堂 (和信앞)

一石三鳥賣渡 [illegible]

文[illegible]美術書籍 서울市貫鐵町(優美館앞) 白花園

讓渡 店舖及事務所(個人所有) 서울市本町一丁目大通 百四拾坪 午前十時부터午後五時까지 電話本局②四三七五

朝鮮文房品商會 서울市櫻井町二丁目 電話本局⑥二一三番

聲明書 三月一日附新聞에 基督敎朝鮮監理會가南山公園에서 開催한三一記念全國大會에參加하엿다는記事는全然無根이오니 報道의誤解임을玆에聲明함 一九四六年三月八日 基督敎朝鮮監理會本部

朝鮮메리야스織物合名會社 社長 徐丙[illegible] 工場長 申[illegible] 京釜線安養 電話二四番

謹告 今般工業用醱酵酸素의販賣價格을如左協定하야三月十一日부터實施하기로하엿아오니右諒解하시와倍舊의愛護를仰望하나이다 新價格 一立方米(千立)拾圓 七立方米入一瓶 七拾圓 西曆一九四六年三月十一日 全國酸素工業協會 朝鮮酸素株式會社(舊名昭和酸素) 東洋壓縮瓦斯株式會社(舊名帝國酸素) 大韓酸素株式會社(舊名東亞酸素) 朝日興業株式會社

謹告 本社는解放後建國途上에서努力하사 工業界需要에應하야酸素를生産供給이엇던中本人이二月九日附軍政廳으로부터管理人에任命되와社名及設備를一新하야經營하오니諸位는倍前愛護하옵나이다 西曆一九四六年三月十一日 永登浦區楊坪町四一四番地 (舊名昭和酸素株式會社) (新名)朝鮮酸素工業株式會社 管理人 申光[illegible] 電話永登浦三〇二番

株主에게告함 一九四五年八月九日現在當會社朝鮮人株主로서日帝時代에創氏로因하야改姓(名)하신株主와法人으로서代表者變更이잇으신株主는[illegible]까지左記書類를提出하시어名義變更手續을하시압 此期間內에[illegible]後日本人으로誤認되어生하는一切의責任을負치아니하오니留意하시압
가 一般個人株主 株式名義變更請求書、戶籍謄本(抄本)、印鑑票二枚
나 法人株主 法人代表者變更記載證明書、代表者印鑑票二枚
追而株式名義變更은當會社所定用紙에依하시압
但 名義變更手數料貳拾錢을徵收함
一九四六年三月七日 서울市中區古市町拾貳番地 朝鮮海陸運輸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黃[illegible]